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최기형 교장선생님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예전에 보았던 신입 경찰관 교육기관인 '경찰학교' 건물외벽에 걸려 있는 슬로건입니다. 경해진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경찰관들에게 '생각을 바꾸라니?' 신선한 감동이었습니다.

인공지능기술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해 사회·경제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로 명명(命名)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요즘, 교육계에서도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변화', '창의성', '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은 무겁고 식상한 주제로 보이겠지만 동산인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 생각이란?

사전적 정의를 보면, '목표에 이르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정신 활동이며 어떻게 이해하고 또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헤아리는 활동으로 사상(思想), 사유(思惟)라고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표현인가요? 유사한 말로 가치관, 인식, 아이디어, 사고작용 등으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생각'은 '행동'을 동반하게 됩니다. 누군가 '너 생각 참 잘 했다'는 말을 한다면 화자(話者)가 바라는 대로 혹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반대로 '너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 라고 말했다면 화자가 원하지 않거나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바꾼다는 것?

'바꾼다'는 말에는 좀 더 좋은 것, 다른 것, 새로운 것, 올바른 것 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꾼다'는 말에는 현재의 생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과서적 지식이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이나 진리라도 시대상황이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예전에 교육계에서 20세기 교실에서 19세기 지식으로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학교 수업 내용의 대부분이 학생들이 살아갈 한 시대 후에는 쓸모없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수업 내용은 물론 수업 방법도 변해야 한다고 하니, 중요한 것은 수업에 임하는 선생님들의 생각, 배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변해야겠지요. '학생 중심 수업',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말이 대세입니다. 덧붙인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었다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3. 미래가 보인다?

가능성이나 개연성(蓋然性) 있는, 더 나은 앞날을 내다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관이나 현상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을 '미래학(未來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일이나 일주일 후의 날씨는? 1년 후 10년 후 집값은? 주가(株價)는? 유망 직업은? 세계경제는? 일상적인 문제부터 전문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관심사에 따라 도래할 세상의 모습을 짐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날씨가 맑지만 오후에 비가 온다는 것을 안다면 우산을 준비해서 대비하는 것처럼, 미래의 모습이 예측 가능한 경우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밝은 미래가 예상될 때는 현재 힘들더라도 참고 견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지금 힘든 일을 참고 견디면 일년에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2017학년도 1학기의 교육활동을 총정리하는 <동산문화 36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지도하신 김희우 선생님, 허민 선생님과 편집한 학생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새롭게 발전하는 <동산문화>의 모습을 보며 항상 동산인으로서 긍지를 느낍니다. 2학기에 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욱 바람직하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바꾸고 행동으로 옮겨서 <37호>에 또 다른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